

釜山의 靑銅器時代 遺蹟과 遺物

서 영 남
(부산대 박물관)

- I. 머리말
- II. 유적과 유물
 - 1. 생활유적
 - 2. 패총유적
 - 3. 분묘유적
 - 4. 유물
- III. 유적의 입지와 분포에 대한 검토
- IV. 무덤의 특징
- V. 맺음말

I. 머리말

청동기시대는 인간이 처음으로 금속기를 사용한 시기로, 농경 생활의 발전을 통해 고대국가로 발전해 나아가는 토대가 형성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다양한 문양이 시문된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토기와는 달리 문양이 없으면서 평저인 생활용토기가 발달되고, 지역색이 강한 무문토기를 사용하게 되며, 지석묘, 다양한 마제석기, 비파형동검 등으로 대표되는 문화기이다. 사실 청동으로 만든 도구는 청동기시대보다 삼한시대¹⁾로 분류되는 한국식동검문화기에 보다 다양해지고, 오히려 청동기시대로 분류되는 시기의 청동기 출토예는 종류와 출토양에서 보다 더 제한적이다.

청동기시대는 토기를 기준으로 분류할 때는 무문토기시대라고 불리운다. 학자에 따라서 무문토기 중 가장 늦게 등장하는 점토대토기를 철기시대의 토기로 분류²⁾하기도 하지만, 본고에서는 삼한시대 전기를 포함하는, 와질토기가 공반되기 이전의 순수 점토대토기단계를 무문토기시대 후기로 설정하는 편년안³⁾을 따른다. 이하 본고에서 서술하는 시기는 모두 이 편년안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혀둔다.⁴⁾

부산의 청동기시대 유적과 유물의 체계적인 정리는 1991년에 부산대 정정원교수가 부산지역의 문화재를 총정리하는 과정에서

- 1) 申敬澈, <三韓·三國時代の 東萊> 《東萊區誌》, 1995.
- 2) 李弘鐘, <韓國 中部地域 靑銅器時代 後期~原三國時代の 住居樣相> 《彌生時代の 集落-中・後を中心として》第45回 埋葬文化財研究會集 發表要旨集, 1999.
정한덕, <‘欣岩里類型 形成過程 再檢討’에의 토론요지> 《호서지방의 선사문화》 제1회 호서고고학회 학술대회 발표요지, 1999.
- 3) 安在皓, <韓國 農耕社會의 成立> 《韓國考古學報》43輯, 2000.
- 4) 부산지역의 청동기시대 유적과 유물의 분포 및 변화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부산지역에서 정치체 ‘국’의 성립과정의 토대를 살펴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기도 하므로 삼한시대 전기로 편년되는 한국식동검문화기의 유적과 유물도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일차적으로 이루어졌다.⁵⁾ 이후 1997년에 하인수⁶⁾가 앞의 자료에서 설명은 되어있으나 구체적인 보고가 없었던 유물과 부산지역의 각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던 유물들에 대한 사진과 도면자료를 함께 보고함과 동시에 그동안 새롭게 조사된 유적·유물들에 대해서도 상세한 정리를 하였다. 본고의 내용과 도면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나, 그 이후 추가되거나 새롭게 소개된 유물들은 앞의 두 글을 상당부분 참조로 하여 작성하였다.

II. 유적과 유물

1. 생활유적

1) 노포동유적

1985년 부산대학교와 부산시립박물관이 공동으로 조사하였으며,⁷⁾ 1996년 5월 25일자로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42호로 지정된 유적이다. 삼한시대 무덤군 가운데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2동이 검출되었으며, 행정구역상으로 부산시 금정구 노포동 142-1, 2, 4, 5번지 일대에 해당된다. 유적은 해발 125m 정도 야산 북서쪽 경사면 해발 60~90m 사이에 위치하는데, 유적지 동편으로는 수영강이 흐르고 있으며, 앞으로는 충적지(지금은 이곳에 지하철 차량기지가 만들어져 있다)가 펼쳐져 있어 비교적 좋은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5) 鄭澄元, <제2절, 선사시대의 문화재> 《부산시사》4, 1991.

_____, <선사시대의 동래> 《東萊區誌》, 1995.

6) 河仁秀, <IV. 靑銅器時代 遺蹟과 遺物> 《釜山の 先史遺蹟과 遺物》, 釜山市立博物館 福泉分館, 1997.

7) 釜山大學校博物館, 《釜山老圃洞遺蹟》, 1988.

釜山市立博物館, 《釜山老圃洞遺蹟》II, 1988.

<축소 유물 : 1/6>

<그림 1> 노포동 1호주거지(1) 출토유물(2) 및 노포동 2호(3)주거지

<축소 토기 : 1/5, 석기 : 1/3>

<그림 2> 노포동 2호(1~11)주거지 및 교란층(12~14) 출토유물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2동뿐이었으나, 석기와 무문토기 파편들이 다수 채집되었고, 삼한시대 무덤도 중복이 극심한 것을 생각한다면 입지상 대규모의 취락지는 아니더라도 취락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주거지는 구릉의 사면 중간지점에서(평지에서 比高 약 50m) 2동이 조사되었다. 2동 모두 장방형의 수혈주거지로 1호주거지(그림 1-1, 370cm×210cm)에서는 내부 시설이 확인되지 않았다. 2호주거지(그림 1-3)에서는 柱穴과 벽을 따라 도는 周溝가 확인되었는데, 수혈은 정형성이 없으며 주구는 높은 사면인 남쪽벽과

서쪽벽에서 확인되었다.

유물은 1호주거지에서 직립구연 대형호(그림 1-2) 1점이 출토되었으며, 2호주거지에서는 口脣刻目된 鉢形土器 1점(그림 2-1)을 비롯하여 8점의 토기(그림 2-2~9)와 함께 미완성의 半月形石刀(그림 2-10) 1점과 석촉(그림 2-11)이 출토되었다. 채집품으로는 공열토기편(그림 2-12)과 유경식 석촉 1점(그림 2-14), 반월형석도편(그림 2-13)이 있다.

주거지의 시기는 1호주거지 출토 직립구연호와 2호주거지 출토 구순각목토기로 보아 무문토기시대 前期로 편년할 수 있다.

2) 반여동유적

동의대학교에서 1986년과 1988년에 실시한 삼국시대 무덤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이다.⁸⁾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2동이 조사되었으며, 행정구역상으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산 345번지 일대에 해당된다. 이 유적은 무덤군의 발굴조사 과정에서 주거지가 발견된 점과 수영강 주변에 발달된 소규모 층적지를 끼고 형성된 유적이라는 점에서 노포동유적의 입지와 비슷하다.

유적은 노포동유적에서 수영강을 따라 남쪽 바닷가쪽으로 내려오면, 수영강 하류쪽에 비교적 넓은 층적지가 있는데, 바로 이곳의 북쪽 낮은 구릉에 입지한다. 이 유적 역시 청동기시대주거지는 2棟만 확인되었으나, 노포동유적과 마찬가지로 소규모 취락지가 형성되어 있었으나, 삼국시대 가야묘들이 축조되면서 대부분 파괴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8) 林孝澤, <釜山 盤如洞遺蹟 發掘調査概報> 《嶺南考古學》2, 1986.

鄭澄元, <제2절, 선사시대의 문화재> 《부산시사》4, 1991.

河仁秀, 1997년 <앞의 책>.

<축소 1~3:1/5, 4·5:1/4, 6·7:1/3>

<그림 3> 반여동 1호주거지 출토유물

주거지는 2동 모두 장방형수혈주거지로 내부에서는 爐址 등 별다른 시설물이 확인되지 않았다. 1호주거지(1100cm×385cm 깊이 60cm)는 비교적 대형으로 잔존상태는 양호하다. 바닥 중앙에서는 기둥구멍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높은 사면쪽 벽을 따라 周溝가 있다. 유물은 사선문토기와 공열토기, 합인석부, 석착, 방추차 등이 출토되었다(그림 3). 토기는 모두 구연부 일부편으로 鉢形土器만 출토되었다. 사선문토기(그림 3-1·2)는 2점 모두 압인수법으로 시문한 난알모양으로 安在皓의 분류⁹⁾ I b式에 해당된다. 孔列土器(그림 3-3)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반관통되게 시문하

9) 安在皓, <(2) 유물의 검토> 《蔚山檢丹里마을遺蹟》 釜山大學校博物館, 1995. p.262.

였으며, 시문구의 말단부가 각진도구로서 押捺한 Ia식¹⁰⁾에 해당된다. 합인석부 2점은 거의 같은 크기로 몸통부분이 약간 납작한 형태이다.

2호주거지(460cm×200cm 깊이 22cm)는 잔존상태가 불량하며, 내부에서는 마제석검편을 재가공한 석창 1점과 무문토기편이 다수 출토되었다.

유적의 시기는 사선문토기와 공열문토기가 공반되어 출토되므로 무문토기시대 중기, 선송국리유형단계로 편년할 수 있다.

3) 율리암음유적

1973년 부산대학교박물관에서 조사한 암음유적으로 바위그늘 앞쪽에 신석기시대 패총이 형성되어 있다.¹¹⁾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율리 서당골에 위치하며, 지금은 패총이 조사된 부분은 도시화로 파괴되었으며 암음만 남아있다. 이 유적은 신석기시대 후기가 중심 시기이지만 암음 내외부 Ⅱ·Ⅲ층에서 청동기시대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청동기시대 유물로는 석촉과 석창, 환상석부, 지석 등이 있다.

석촉(그림 4-3)은 일단경식으로 점판암제이다. 신부단면은 마름모꼴이며, 경부 단면은 네모꼴이다. 길이 6.9cm, 너비 1.2cm. 마제석창(그림 4-2)은 단면 사다리꼴의 소형으로 자루부분은 결실되었다. 날은 한쪽에만 만들어져 있으며, 길이 5.3cm, 너비 1.3cm이다. 환상석부(그림 4-4)는 세립사암제로 부분적으로 파손되어 현재의 형태는 부채꼴을 이루고 있다. 잔존길이 11.3cm, 너비 7.7cm.

<그림 4-3>의 석촉은 청동기시대 전기 후반대에 출현하는 것

10) 安在晧, 1995년 <앞의 글>.

11) 金廷鶴·鄭澄元, 《金谷洞栗里貝塚-岩蔭住居遺蹟-》, 釜山大學校博物館, 1980.

<축소 유물 : 1/3>

<그림 4> 울리암음유적 입단면도(1)와 출토유물(2~4) 및
괴정동패총(5·6)출토유물

<축소 토기 : 1/5, 석기 : 1/3>

<그림 5> 괴정1동(1), 괴정동패총(2), 괴정2동(3~9) 출토유물

으로 편년되고 있으며,¹²⁾ 환상석부는 최근들어 영남지방에서 공열토기와 공반되어 출토되는 예가 증가하고 있다. 암음유적은 일반적으로 사냥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임시적인 거주가 이루어진 곳이다. 본 울리암음은 신석기시대에 주로 거주지로 이용되었지만, 청동기시대 전기에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괴정1동유적

이곳은 공사중에 유물이 노출되어 알려지게 된 유적으로, 공사로 인해 모두 파괴되었기 때문에 유적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¹³⁾ 유적은 괴정동에서 감천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밑 (구)삼성중학교(현재 장평중학교)의 교문 옆 도로변에 위치한다. 돌무지와 같이 눈에 띄는 구조물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거유적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유물은 무문토기호 1점(그림 5-1)만 확인되었다. 괴정2동 출토 단도마연토기(그림 5-3)와 크기 및 형태면에서 흡사하다. 적갈색의 색조를 띠며, 목은 거의 직립한다. 기고 32.8cm, 구경 14.8cm, 저경 9.1cm. 시기는 무문토기시대 중기 후반으로 편년된다.

5) 오륜동유적

이 유적은 여러 차례에 걸친 지표조사에서 석기가 채집되어 알려진 유적이다.¹⁴⁾ 행정구역상으로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동 175번지 일대에 해당된다. 1975년도에 부산대학교 박물관에서,

12) 安在皓, 《南韓 前期無文土器의 編年—嶺南地方의 資料를 中心으로》, 慶北大學校 大學院, 1991.

13) 金廷鶴, <1. 無文土器文化> 《韓國의 考古學》, 金廷鶴編, 東京, 1972.

14) 河仁秀, <IV. 青銅器時代 遺蹟과 遺物> 《釜山의 先史遺蹟과 遺物》, 釜山市立博物館 福泉分館, 1997.

홍보식·이현주·동진숙, 《釜山五倫洞遺蹟》, 부산시립박물관 복천분관, 1999.

<축소 1/4>

<그림 6> 오륜대 출토유물

1996년도에 부산시립박물관에서 이 일대를 발굴조사 하였으나, 청동기시대의 유물과 관련된 유구는 확인할 수 없었다. 수영강가에 있는 낮은 구릉에 입지하고 있어 청동기시대 취락이 형성되기에 아주 좋은 곳이나 청동기시대 유구는 삼국시대 무덤과 조선시대 건물등으로 모두 파괴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유물은 석기와 무문토기 편들만 다수 채집되었는데, 토기는 형태를 알 수 없는 작은 파편뿐이다. 석기는 주로 석부들이 채집되었는데, 합인석부와 유구석부, 날부분만 마연된 타제석부 등이 있다. <부산의 선사유적과 유물>과 <부산오륜동유적>에 보고된 내용을 그대로 요약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오륜대 출토 유물

그림번호	유 물 명	재 질	크 기(cm)		
			길이	너비	두께
6-1	합인석부	화강암	20.6	10	4.2
6-2	갈판	사암	20.0	11.2	4.8
6-3	합인석부	화강암	7.8	4.5	2.4
6-4	석부	이암혼펠스	8.4	6.2	2.2
6-5	유구석부	이암혼펠스	8.8	3.0	2.8
6-6	유구석부	이암혼펠스	(6.2)	4.8	2.2
6-7	석부		11.0	5.7	1.8
6-8	합인석부		(10.6)	5.6	4.2
6-9	지석	사암	11.4	5.2	2.0
6-10	방추차	토제	5.4		

이 유물들은 공반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으나, 대략 무문토기시대 前期에서 중기 전반에 걸친 유물들로 편년할 수 있겠다.

6) 온천동유적

이 유적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금강공원내에 위치한다.¹⁵⁾ 유적은 금정산에서 남동쪽으로 파출된 해발 40~50m 정도의 낮은 구릉에 존재하는데, 체육시설들이 만들어지는등 공원으로 조성되면서 유적의 상당부분은 파괴된 것으로 파악된다. 유적의 동편으로는 온천천이 흐르고 있으며 유적과 온천천 사이의 평지(온천장일대)에는 층적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청동기시대 주거 유적이 입지하기에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유물은 다량의 무문토기 편들이 채집되었는데, 어느정도 기형을 알 수 있는 것은 2점으로 무문토기 발 1점과 일본 彌生式 壺 1점이¹⁶⁾ 보고되어 있다. 발(그림 7-2)은 소형으로 구연 상단부가 약간 내만하는 형태이다. 내면은 종방향 목리정면하였는데, 치구의 폭이 넓다. 구연부 내면에는 지두압흔이 촘촘히 관찰된다. 외면은 대부분 표면이 박리되어 정면수법을 알 수 없다. 구순은 둥근 느낌으로 처리되었으며, 바닥은 평탄하다. 橙色(5YR 7/6)을 띄며, 태토에는 석영, 장석, 석립등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기고 12.2cm, 구경 13.7cm, 저경 7.6cm.

壺(그림 7-1)의 동체부에는 彌生土器의 특징적인 형태인 돌대가 부착되어 있으며, 구연부 상단은 수평면을 가진다. 기고 45.0cm, 구경 21.0cm. 彌生土器 호는 일본 彌生시대 中期初頭(원형점토대 토기단계)로 편년되며, 무문토기 발은 무문토기 전기와 중기에 걸쳐 다양하게 출토되는 형태의 것이다. 이들 유물외에도 온천동 일대에서 출토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것으로 <그림 15-10>의 송국리형석검과 온천동지석묘에서 출토되었다고 기록된

15) 鄭澄元, 1991년 <앞의 글>.

河仁秀, 1997년 <앞의 글>.

16) 申敬澈, <釜山 東萊溫泉洞 出土 無文土器> 《伽倻通信》10, 1984.

_____, <第四章 靑銅器時代의 釜山> 《부산의 역사와 자연》, 부산라이프 신문사, 1992. pp.84-87.

<축소 1·2:1/7, 그외:1/4>

<그림 7> 온천동(1·2), 시랑리 공수A·B·C(3~5), 장안읍 임랑(6),
거제동(7~15), 연산동(16) 출토유물

<그림 16-4>의 석검이 있다. 온천동일대에는 무문토기시대 중기에서부터 후기에 걸친 생활유적과 무덤유적이 존재하였다고 판단된다.

7) 시랑리 공수A유적

기장군 전역이 부산광역시로 편입되어, 1998년도에 부산대학교 박물관에서 실시한 정밀지표조사로 확인된 유적이다.¹⁷⁾ 행정구역상으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595, 392, 527번지 일대이다. 해발 60m의 야트막한 야산인 명두산 동편 끝자락 일대의 평지로 바다에서 멀지 않다. 여기에서 무문토기편 다수와 어망추, 석재, 망치돌 등이 채집되었다. 청동기시대의 생활유적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물(그림 7-3~5)은 시랑리 공수리 일대에서 채집된 석기 박편들이다. 현재는 이 유적을 가로질러 도로가 만들어져 있으며, 민가가 형성되어있다. 어느정도 파괴가 이루어졌겠지만, 부산 시내에 있는 유적의 파괴정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유적이 보존되고, 활용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유적의 연대는 토기편이 워낙 파편이어서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8) 장안읍 임랑리유적

1998년도 부산대학교박물관에서 실시한 정밀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이다.¹⁸⁾ 행정구역상으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임랑리 까치골지 북쪽에 해당된다. 분묘유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무문토기 잔편과 석기편이 채집되었다. 무문토기시대 생활유적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석기(그림 7-6)는 함인석부편으로, 비

17)釜山大學校博物館,《機張郡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1998. 2. pp.33-34.

18)釜山大學校博物館,1998년 <앞의 책>. pp.99-101.

교적 대형이다. 날 부분쪽 일부만 잔존하는데, 날부분은 잘 마연하였고, 이암혼펠스제이다. 잔존길이 12.9cm, 너비 11.7cm, 두께 2.1cm. 시기는 유구의 형태를 알 수 없고 공반유물이 없어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전기의 생활 유적이 존재하였다고 판단된다.

9) 청강리유적

이 유적은 1997년 부산시립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되었으며, 행정구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229-1, 청강리 714-1번지 일대에 해당된다.¹⁹⁾ 삼국시대 석곽묘가 중심을 이루는 유적이지만 청동기시대 유물인 무문토기와 단도마연토기 파편이 출토되었다. 그러나 모두 극히 일부분의 파편들이어서 기형과 시기를 알 수 없다.

10) 거제동유적

이 유적은 1997년도에 택지조성공사로 인하여 부산시립박물관이 조사한 유적이다.²⁰⁾ 행정구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314번지 일대에 해당되며, 금용산에서 북동쪽으로 뻗은 낮은 구릉에서 무문토기가 채집되었다. 주변에 작은 하천이 흐르고 있어 청동기시대 유적의 입지조건으로는 적합하였으나, 시굴조사 결과 유구의 흔적은 찾을수가 없었다고 한다. 유적은 이미 파괴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함인석부과 무문토기 저부편, 고배 각 부편과 원형점토대토기 구연부 편이 채집되었다(그림 7-7~15). 고배와 점토대토기로 보아 원형점토대토기단계(후기)의 유적이라고 판단된다.

19) 河仁秀, 《釜山の 先史遺蹟과 遺物》, 釜山市立博物館 福泉分館, 1997.

부산시립박물관, 《機張清江里古墳群》, 1998.

20) 河仁秀, 1997년 <앞의 글>, p.103.

11) 연산동유적

2000년 부산시립박물관 북천분관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산 90-4번지 일대에 실시한 고분군발굴조사에서 무문토기 저부와 무문토기 잔편이 다수 채집되었다.²¹⁾ <그림 7-16>의 무문토기 저부는 고분군 하단에 등고선방향과 거의 나란히 설치된 구상유구의 상부 교란층에서 출토되었다. 구상유구는 해발 31m 선상에 자연암반을 파고 설치되었으며, 구릉 전체에 반원상으로 둘러져 있다. 유구의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내부에서 삼국시대 토기편이 수 점 출토되어 삼국시대 이후 것임을 알 수 있다.

어느정도 형태를 알 수 있는 것은 무문토기(그림 7-16) 1점뿐이다. 유물은 구 내부가 아니라 상부 교란층에서 출토되었으며, 무문토기가 출토된 구도 급경사지에 설치되어 있어, 무문토기는 위에서 휩쓸려 들어온 것으로 생각된다. 무문토기와 관련된 유구는 구릉 상부 평탄한 능선 부분에 자리잡고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그림 7-16>의 무문토기 저부는 소성이 양호하며, 등색을 띤다. 태토에는 석영, 장석 등이 보통정도 포함되어 있다.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고 4.5cm, 저경 10.2cm.

12) 내성유적

북천동고분군이 위치하는 구릉의 동남쪽 평지에 가까운 말단부에 위치하는 유적으로, 현재 동래교육구청이 자리잡고 있다. 1989년 부산시립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되었으며, 행정구역상으로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북천동 72번지에 해당된다.²²⁾

삼국시대 목곽묘군 속에서 무문토기 주거지 2동이 확인되었다.

21) 부산시립박물관 북천분관, <부산연산동고분군>, 현장설명회자료 2, 2000, 6.

22) 宋桂鉉·河仁秀, 《東萊福泉洞 萊城遺蹟》, 釜山市立博物館, 1990.

부산시내 평지에도 생활유적이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보여진다. 주거지 내부와 주위에서 점토대토기와 彌生土器가 출토되었는데, 일본의 彌生時代 중기로 편년되는 彌生土器의 출토양이 월등히 많다. 일본과의 교류의 일면을 보여주는 좋은 유적으로 판단된다. 시기는 무문토기시대 후기에 해당된다.

<축소 주거지 : 1/60, 유물 : 1/4>

<그림 8> 내성 1호주거지와 출토유물

<축소 1/5>

<그림 9> 내성1호(1~3), 1호상부(4~13), 교란층(14~40) 출토유물

2. 패총유적

1) 조도유적

조도(아치섬)유적은 여러차례의 조사와 보고로 신석기시대 패총유적으로 알려져 왔으며, 1973년 한국해양대학교 신축공사로 인하여 실시된 국립중앙박물관의 발굴로 유적의 전반을 알 수 있게 되었다.²³⁾ 행정구역상으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번지에 해당된다. 청동기시대의 유물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발굴한 제1지구 패총의 최하층인 Ⅲ층에서 주로 출토되었다. 전기의 유물로 공염문 발과 호형토기가 출토되었다.

<축소 토기 : 1/5, 석기 : 1/4>

<그림 10> 조도패총 출토유물

23) 韓炳三·李健茂, 《朝島貝塚》, 國立中央博物館, 1976.

공열토기호(그림 10-2)와 발(그림 10-3·4)은 모두 반관통공열문으로 밖에서 안으로 뚫은 형태이다. 극히 일부 편이나 중기로 편년할 수 있는 송국리형토기(그림 10-5·8)도 출토되었다. 후기로 편년할 수 있는 점토대토기와 일본 彌生土器도 몇 점 출토되어 전기부터 후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유적임을 알 수 있다.

2) 괴정동패총

1933년 일본인(左山左右吉)이 이곳에서 유물을 채집하였다고 하며, 그 후 1964년 朴商憲씨에 의해 학계에 소개되었으며, 1978년 도로공사로 인해 부산대학교박물관에서 간단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별다른 성과는 없었고, 도시화로 소멸되어 버린 유적이다.²⁴⁾ 행정구역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903~906번지 일대에 해당된다.

유물은 1933년에 채집된 것은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며, 1964년도 보고된 것은 하층과 상층유물로 나누어진다. 상층유물은 삼한~삼국시대 유물들이며, 하층 출토유물은 청동시대에 속하며 일본농경문화의 시원을 밝히는 중요한 자료로 소개된²⁵⁾ 단도마연토기(그림 5-2)도 포함하고 있다.

<그림 5-2>의 단도마연토기는 평저에 짧게 외반하는 구연을 가진 송국리형 무문토기 기형이다. 어깨부분은 결실되어 정확한 모습은 알 수 없지만 꼭지형 파수가 부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외면의 동체부는 중방향, 구연부는 횡방향 목판문지르기로 정면하였으며, 내면은 물손질 정면하였다.²⁶⁾ 기고 21.6cm, 구경 12.5cm, 저경 8.6cm. 본 단도마연토기의 특징으로 보아 청동기시대 문화

24) 朴商憲, <洛東江口 東岸의 貝塚> 《考古美術》6-6, 1965.

鄭澄元, <제2절, 선사시대의 문화재> 《부산시사》4, 1991.

25) 杉原莊介, 《日本農耕文化の形成》, 吉川弘文館, 1977. pp.261-268.

26) 尹部映, <釜山 槐亭洞貝塚出土 丹塗磨研土器> 《古文化》40·41, 1992.

층은 증기로 편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림 4-5>는 유물 자체에 1962년 6월 20일 槐亭貝塚에서 채집되었다는 기록만 존재하며, 자세한 출토상황은 알 수 없다. 현재 부산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합인석부 미완성품으로 전체적으로 마모가 심한 편이다. 마모가 심하기는 하지만, 날부분에도 고타 흔적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타정 후 고타단계의 미완성품으로 판단된다. 재질은 閃綠斑岩이다.²⁷⁾ 길이 14.0cm, 너비 6.9cm, 두께 3.9cm.

<그림 4-6>은 앞의 석부와 같이 유물 자체에 槐亭(B) 59. 10. 4라는 기록만 남아 있는 유물로, 자세한 유물출토 상황은 알 수 없다. 반월형석도 파손품으로 재질은 黑色泥巖이다. 舟形石刀의 파손품을 삼각형석도로 재가공하려던 미완성품으로 판단된다. 전면 거친 마연흔이 관찰되는데, 刀部는 마연으로 가공하던 단계로 날부분이 뚜렷하지 않으나, 파손된 부분 반대쪽 刀部에 사용흔적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재가공 중임을 알 수 있다. 구멍은 1곳만 잔존하는데, 양쪽에서 뚫었으며, 구멍상부의 크기가 다르다. 구멍에서 背와의 거리는 1.5cm 정도로 짧은 편이다. 잔존 길이 7.5cm, 너비 5.5cm, 두께 1.0cm이다.

3) 북정 패총

1970년대에 부산대학교 박물관에서 실시한 지표조사로 확인된 유적으로 신석기시대와 삼국시대의 패총이 조사되었으며, 무문토기 몇 점이 교란층에서 출토되었다.²⁸⁾ 행정구역상으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전1254-7번지 일대에 해당된다.

무문토기는 원형점토대토기와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었으며, 이와 함께 彌生 中期로 편년되는 일본 彌生式土器도 1점이

27) <그림 4-6>의 석도와 함께 부산대학교 지질학과 윤선교수의 육안관찰에 의한 것이다.

28) 釜山水產大學校博物館, 《北亭貝塚》, 1993.

출토되었다.

<축소 1/5>

<그림 11> 북정패총 출토유물

지금은 김해평야 가운데 조그만한 동산의 북쪽 끝자락에 유적이 위치하고 있으나, 고대의 해수면이 해발 2m정도라고 한다면 김해만 내에 섬으로 존재하였을 것이다.²⁹⁾ 신석기시대 초기부터 삼국시대까지 어로와 해상활동과 관련되어 만내에 섬으로서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무문토기와 일본 彌生土器가 함께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무문토기시대에도 해상을 통한 교역의 요충지로서 역할도 담당하였을 것이다.

3. 분묘유적

1) 노포동 대룡石棺墓

1998년도에 부산대학교박물관이 경부고속도로 확장구간(언양-부산)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화유적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이다.³⁰⁾ 행정구역상으로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 산 77, 81-4, 82번지 일대에 해당된다. 유적은 수영강 서편, 계명봉(해발 601m)

29) 釜山大學校博物館, 《金海鳳凰臺遺蹟》, 1998. p.7 지도 참조.

30) 釜山大學校博物館, 《경부고속도로 확장구간(언양-부산) 文化遺蹟 地表調査報告書》, 1998.

에서 동남쪽으로 뻗어내린 낮은 구릉에 위치하며, 앞에서 언급한 노포동 주거지와 작은 충적지(지금은 지하철 차량기지)를 사이에 두고 북쪽에 자리잡고 있다. 지하철 차량기지내에서도 무문토기 잔편이 채집되었다고 전하여 지는 것으로 보아, 대룡석관묘에서 노포동 주거지 일대의 수영강 서편 구간은 취락과 분묘 등 다수의 청동기시대 유적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12>의 석관묘는 해발 125~140m의 산 82번지 구릉 능선부의 지표상에 드러나 있었던 것이다. 이 석관묘는 내부 출토 유물이 없어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으나, 주위에서 무문토기 잔편들이 채집되었으며, 이러한 형태의 석관묘는 청동기시대 중기로 편년할 수 있는 시기에 다수 조사된 예가 있다. 또한, 지석묘의 하부구조일 가능성도 있다. 양쪽 단벽 벽석은 없어졌으나, 남북 장벽은 일부 남아 있었다. 규모는 묘광이 길이 97cm, 너비 42cm이며, 내부는 길이 85cm, 너비 15cm로 추정된다.

<축소 1/20>

<그림 12> 노포동 대룡 석관묘

2) 사직동유적

1964년 사직동 산기슭에서 주민에 의해 발견된 유적으로 유적은 이때 이미 완전히 파괴된 상태여서 유구의 구조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³¹⁾ 발견자의 말에 의하면, 동서방향을 장축으로, 네벽과 개석은 각각 1장의 판석으로 만들어진 석판묘로 상면에는 작은 역석이 깔려 있었으며, 지상에는 아무런 표식이 없었다고 한다.

유물은 무문토기 2점과 석검 2점이 북벽 가까이에서 출토되었다고 하는데, 출토지점은 석관의 내부인지 묘광과 석관 사이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³²⁾ 이중 석검 1점과 소형의 무문토기 1점은 현장에서 파손, 분실되었다.

무문토기(그림 13-1)호는 평저로 거의 직립하는 짧은 목을 가진 용에 가까운 형태이다. 구연은 짧게 외반한다.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었으며, 구연 외측에는 押引기법으로 시문한 난알형 사선문(Ib式)³³⁾이 시문되어있다. 이 문양은 손가락을 내면에 받치고 석부나 반월형석도와 같은 도구의 인부로 눌러 그은 것으로 추정된다. 사선문은 길이 3cm 내외이며, 간격은 2cm 내외이다. 높이 24.4cm, 구경 14.3cm, 저경 8.8cm.

석검(그림 13-2)은 일단병식으로 검신 단면은 마름모꼴이며, 심부와 병두부가 다소 돌출된 형태이다. 심부와 병두부의 폭이 동일하며, 병부 단면도 마름모꼴을 이룬다. 전체길이 22.8cm, 신부길이 14.1cm, 심·병부폭 8.1cm이다.

<그림 13-1>의 무문토기호는 단사선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구연이 약하게 외반하는 형태로 송국리형토기호의 변화과정에 있는 형태이다. 유적의 시기는 유물로 보아 중기 전반으로 편년할 수 있다.

31) 金元龍, <東萊出土 先史時代 短頸卮> 《亞細亞研究》8-2, 高麗大學校, 1965.

金廷鶴, <1. 無文土器文化> 《韓國의 考古學》, 金廷鶴編, 東京, 1972. p.100.

鄭澄元, <제2절, 선사시대의 문화재> 《부산시사》4, 1991.

32) 鄭澄元, <제2절, 선사시대의 문화재> 《부산시사》4, 1991. pp.732-733.

安在皓, <釜山 社稷洞出土 一括遺物> 《伽倻通信》84년 신년호.

33) 安在皓, 1991년 <앞의 글> p.262.

<축소 1 : 1/5, 2~4 : 1/4, 5·6 : 1/3>

<그림 13> 사직동 분묘(1·2), 사직동(3), 감천동 지식묘(4),
감천동 지식묘주변(5·6) 출토유물

3) 괴정2동유적

괴정동 천마산 기슭의 대티고개로 올라가는 구도로 입구 구릉 상에 위치하며, 공사중에 발견되었다고 한다.³⁴⁾ 20cm 내외의 할석을 이용하여 쌓은 석곽묘로 이미 대부분이 파괴된 뒤 발견되어 지석묘의 하부구조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석곽의 개석이라고 추정되는 판석의 크기는 길이 160cm, 너비 50cm, 두께 20cm 정도이다. 석곽의 규모는 남아 있던 한쪽 측벽으로 유추하여 보면 길이 180cm, 깊이 70cm 정도로 추정된다.

유물은 단도마연토기 1점과 마제석검 1점, 석촉 5점이 수습되었다. 단도마연토기(그림 5-3)는 앞에서 서술한 괴정1동 출토 무문토기 호와 흡사하다. 평저의 호형 단도마연토기로 외면전체와 경부 내외면에 卍을 발랐으며, 높이 33.1cm, 구경 15.2cm, 저경 10cm의 크기이다.

석검(그림 5-6)은 전체적인 크기에 비해 병부가 강조된 형태의 일단병식이며, 심부와 병두부가 아주 돌출된 점이 특징적이다. 길이 25.2cm, 검신길이 14.1cm, 병부길이 11.1cm, 심부폭 22.6cm, 병두부 복원폭 25.2cm의 크기이다.

석촉(그림 5-4·5·7~9)은 모두 5점으로, 2점은 파손품인데, 나머지 3점과 같은 형태로 추정된다. 촉신이 매우 길어진 형태의 석촉으로, 촉신의 단면은 마름모꼴이다. 경부는 단면 육각형으로 일단경식석촉이다. 3점 모두 앞부분이 결실되었는데, 길이 12~13cm로 추정된다. 석촉은 송국리류형의 전형적인 IV類석촉³⁵⁾이며, 석검은 형식학적으로 마지막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본 괴정2동유적은 중기 후반대로 편년할 수 있을 것 같다.

34) 金廷鶴, 1972년 <앞의 글>.

35) 安在皓, 1991년 <앞의 책>.

4) 감천동지석묘

부산광역시 서구 감천동 562번지 일대에 모두 6기의 지석묘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지금은 발전소 건설 및 도로공사 등으로 모두 훼손되고만 유적이다.³⁶⁾ 모두 정식발굴을 거치지 않고 소멸되어버려 유구형태, 출토유물을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다.

제1호 지석묘는 1964년 도로공사 중 석검이 발견되어 알려진 것으로 하부는 석곽의 형태로 석곽 규모는 길이 220cm, 너비 90cm, 깊이 50cm이다. 지석과 상석을 갖춘 남방식지석묘로 추정되고 있으며, 석곽 내부에서 일단병식 석검 1점이 출토되었다. 석검(그림 13-4)은 이암혼펠스제로 칼끝이 결손되었다. 심부와 병두부가 날카롭게 돌출된 것이 특징적이다. 잔존길이 26.5cm, 폭 2.6cm.

제2호 지석묘는 1호 지석묘와 구조가 동일하다고 하며, 상석은 길이 300cm, 너비 200cm, 두께 120cm 크기로 비교적 큰 편이다. 제3호 지석묘는 2호 지석묘와 크기가 비슷하며 도로확장공사시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다. 제4호 지석묘는 상석의 크기가 1×1m 내외의 작은 규모로 집터에 매립되었다고 한다. 제5호 지석묘 역시 집터공사로 파괴되었으나 내부에서 이단병식석검이 1점 출토되었다. 제6호 지석묘는 1994년 식당주택 신축공사로 인하여 부산시립박물관에서 조사한 결과 上石으로 추정되는 돌은 다른 곳에서 이동되어 온 것으로 上石 아래에서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한다.³⁷⁾

이들 지석묘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하부구조는 할석형석곽이며, 그 위에 지석과 상석을 갖춘 남방식지석묘로 파악되며, 연대는 1호에서 일단병식석검, 4호에서 이단병식석검이 출토되어 약간의 시기폭이 있으나 대체로 중기로 편년할 수 있을 것이다.

36) 朴商憲, <釜山市 甘川洞 支石墓> 《考古美術》7-1, 1966.

鄭澄元, <제2절, 선사시대의 문화재> 《부산시사》4, 1991.

37) 河仁秀, 1997년 <알의 책>. pp.100-101.

<그림 13-5, 6>은 지석묘 조사 당시 지석묘 주변에서 채집된 석부들이다. 지석묘에서 출토된 석검과 같은 시기로 편년할 수 있다. 지석묘와 관련있는 생활유적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3-5>는 유구석부이다. 刃部의 일부가 결손되었으며, 신부 단면은 사다리꼴이다. 길이 11.4cm, 너비 4.8cm, 두께 4.6cm. <그림 13-6>은 편인석부로 이암혼펠스제로 신부와 인부는 잘 마연하였다. 길이 10.8cm, 너비 7.4cm, 두께 2.6cm.

<그림 13-5> 유구석부는 뚜렷하게 각을 이루는 구와, 횡단면 梯形을 이루는 형태로 송국리류형에 속하는 것이다.³⁸⁾ 무문토기 시대 중기부터 묘역이 주거구역과 가까운 거리를 두고 분리된다.³⁹⁾ 감천동 지석묘유적 가까이에든 중기시기의 주거지등 생활 유적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5) 두구동 임석유적

1987년 부산시립박물관에서 발굴조사한 유적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 산 64-1번지 일대에 위치한다.⁴⁰⁾ 삼국시대 석곽묘가 주축을 이루는 유적으로 지석묘 하부구조로 추정되는 석곽묘는 1기만 확인되었다. 석곽묘(그림 14-1)의 4벽은 할석으로 축조하였으며, 정연하지 못하다. 바닥에는 잔자갈을 깔았고, 동단벽 상부에는 개석으로 추정되는 판석 1매가 덮혀 있었다. 묘광은 길이 300cm, 너비 105cm, 깊이 70cm, 석곽은 길이 145cm, 너비 60cm, 깊이 60cm 정도이다. 내부에서는 마제석창 1점과 무문토기 1점이 출토되었다. 석창(그림 14-7)은 산화가 심하여 마연상태는 관찰되지 않는다.

단면 편평한 육각형으로 길이 8.5cm, 너비 3.7cm, 두께 0.4cm

38) 安在皓, <松菊里類型的 檢討> 《嶺南考古學》第11號, 1992. 12.

39) 釜山大學校博物館, 《蔚山檢丹里마을遺蹟》, 1995.

40) 朴志明·宋桂鉉, 《釜山 杜邱洞 林石遺蹟》, 釜山市立博物館, 1990.

이다. 무문토기(그림 14-2)는 장각고배의 배부로 생각된다. 잔존 높이가 5.1cm, 구경 17.0cm이다. 이들 유물외에도 석곽 주변에서 유구석부편(그림 14-5)과 원형점토대토기 구연부편(그림 14-4) 등이 출토되었다. 대체로 석곽묘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과 함께 모두 원형점토대토기단계로 편년할수 있는 유물들이다. 본 석곽묘가 지석묘의 하부구조라고 한다면, 지석묘 하한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적이다.

<축소 토기 : 1/5, 석기 : 1/3>

<그림 14> 두구동 임석 석곽묘(1)와 내부(2·7), 교란층(3~6) 출토유물

6) 미음동 분절지석묘

유적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동 분절마을 동쪽의 분절 第1小溜池 옆에 있는 정자나무 아래에 위치한다.⁴¹⁾ 지석묘 상석은 10여개로 쪼개어져 현재 정자나무 아래 공동 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석묘는 모두 3~4기 정도로, 상석은 길이 2~4m, 두께 40~60cm로 추정된다.

지석묘의 구조는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상석 아래에 지석으로 추정되는 돌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蓋石式支石墓로 생각된다. 지석묘의 시기는 中期로 추정되며, 주위에서 유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 하부구조가 잘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다.

7) 가덕도 두문지석묘

1992년도 부산여자대학교 박물관(현재 신라대학교 박물관)에서 실시한 가덕도 문화유적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이다.⁴²⁾ 지석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성동 두문부락의 가덕도 西岸의 바다에서 30m 떨어진 밭에 위치하고 있는데, 1기만 확인되었다. 길이 200cm, 너비 150cm, 두께 60cm의 규모의 상석아래에 지석으로 보이는 돌들이 노출되어 있으며, 상석과 지석 사이에는 잡석이 채워져 있는 상태이다. 상석과 지석을 갖춘 남방식지석묘로 생각되며, 중기 정도로 편년할 수 있을 것 같다.

8) 장전동유적

1935년 일제강점기 때 동래구 장전동일대 동래-울산도로변에서 확인된 유적이다. 평편한 개석 바로 아래에 장방형의 석관을

41) 釜山市立博物館, 《伽倻文化圈遺蹟精密調査報告書》, 釜山市, 1991.

鄭澄元 外, <綠山の 考古學 분야 調査> 《綠山文化遺蹟 學術調査報告書》, 釜山大學校 韓國文化研究所, 1992.

42) 蔡奎墩·金元卿, 《加德島文化遺蹟 地表調査報告書》, 부산여자대학교 박물관, 1992.

<축소 1/4>

<그림 15> 장진동(1·2), 수영동(3), 동래(4·5), 북천동 60호분내(6·7),
당감동(8), 온천동(9·10), 반송동(11), 대신동(12) 출토유물

갖춘 남방식지석묘에서 석검 1점과 십자형 석제 검과두식 1점이 출토되었다고 알려져있다.⁴³⁾ 보고자의 언급대로 편평석을 개석으로 사용한 개석식지석묘일 가능성도 있으나, 상석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편평석을 개석으로 둔 판석형 석곽묘일 가능성도 있다.

석검은 석곽의 거의 중앙에서 출토되었으며, 그 아래 30cm 정도 떨어져 석검과 일직선상에 검과두식이 출토되었다고 한다. 석검과 검과두식은 set일 가능성이 높다. 석검(그림 15-2)은 한국식동검문화기에 출토되는 편평삼각형석촉과 형태가 같으며,⁴⁴⁾ 여기서 크기만 커진 형태이다. 신부단면은 편육각형이며 봉부는 능형이다. 길이 13.4cm, 폭 2.4cm이다.

검과두식(그림 15-1)은 석제로 십자형을 이루며, 석검과는 나무자루로 연결되었다고 판단된다. 길이 6.6cm, 너비 5.4cm, 두께 2.4cm. 십자형 석제 검과두식이 지석묘에서 출토된 예는 영암장천리 출토품 1점이 알려져 있다.⁴⁵⁾ 영남지방에서 십자형 검과두식은 대체로 한국식동검문화 단계부터 출토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장전동 석관묘가 지석묘의 하부구조라고 한다면, 임석유적과 함께 지석묘의 하한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유적이다.

4. 유물

1) 석검

석검자료로는 <그림 13-3>의 사직동출토 이단병식석검, <그

43) 有光教一, 《朝鮮磨製石劍の研究》, 京都大學文學部考古學叢書 第二冊, 京都, 1959. p.35.

44) 全榮來, <韓國靑銅器文化의 系譜와 編年-多鈕鏡의 變遷을 中心으로-> 《全北遺蹟調査報告》第7輯, 全州市立博物館, 1997.

45) 木浦大學校博物館·靈岩郡, 《靈岩 靑龍里·長川里支石墓群》, 1984.

림 15-3>의 수영동출토 유경식석검, <그림 15-4·5>의 동래출토 일단병식석검, <그림 15-9·10>의 온천동출토 석검, <그림 15-11>의 반송동출토 일단병식석검, <그림 15-12>의 대신동출토 이단병식석검등이 있다. 모두 유물이 출토된 유구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분묘 출토품일 가능성이 높다.

이 중에서 <그림 13-3>의 석검은 사직동 지석묘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하고 있으며,⁴⁶⁾ <그림 15-12>의 대신동 출토 석검은 1934년 대신동 77번지에서 상자형석관묘에서 무문토기편들과 함께 출토되었는데, 주위에 지석묘 상석처럼 보이는 큰돌이 있었다고 한다.⁴⁷⁾ 이곳은 현재 동아대학교 구덕캠퍼스가 자리잡고 있는 곳으로 가까이에는 구덕산에서 발원하는 보수천이 흐르고 있다. 대신동 일대에서는 청동기시대 유적이 알려진 곳이 없으나 자연환경으로 보아 청동기시대 유적들이 많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2> 부산지역에서 출토된 석검

그림번호	출 토 지	석검형식	규 격(cm)		문헌(註)
			길이	폭	
13-3	사직동	이단병식석검	(24.4)	(8.1)	6
15-3	수영동	유경식석검	20.8	4.4	47
15-4	동래	일단병식석검	27.4	5.1	47
15-5	동래	일단병식석검	20.2	5.4	47
15-9	온천동	일단병식석검	(20.3)	·	6
15-10	온천동	유경식석검	11.8	2.4	48
15-11	반송동	일단병식석검	(16.4)	(5.25)	6
15-12	대신동	이단병식석검	(30.9)	6.6	47

46) 金元龍, <東萊出土 先史時代 短頸部> 《亞細亞研究》8-2, 高麗大學校, 1965.

金廷鶴, <青銅器時代-1. 無文土器文化> 《韓國의考古學》金廷鶴編, 東京, 1972.

47) 有光教一, <朝鮮磨製石劍の研究> 京都大學文學部考古學叢書 第二冊, 京都, 1959.

<그림 15-9>는 온천2동에서 출토된 것인데, 병부와 신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그림 15-10>은 이암혼펠스제로 송국리형석검으로 불리우는 석검이다.⁴⁸⁾ 온천동 동래원에고등학교 뒷편에서 출토되었다. <표 2>에 제시된 석검들 외에도 부곡동·금사동·거제동과 기장 칠암리에서도 마제석검이 출토되었다고 한다. 부산 시내 곳곳에 청동기시대 분묘유적이 존재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2) 석부

석부자료는 북천동고분군 60호분 내에서 유구석부 1점과 편평편인석부 1점이 출토되었고, 양정동 채집 합인석부 1점이 있으며, 감천동 채집품으로 유구석부 1점과 편인석부 1점이 있다.

<그림 15-6·7>은 4세기대로 편년되는 북천동 60호분 내에서 출토되었는데, 한점은 서쪽 장벽 아래의 시상 바깥쪽에서 출토되었고, 한점은 충진토내에서 출토되었다.⁴⁹⁾ 무덤에 일부러 부장한 것인지, 청동기시대의 유구가 파괴되면서 흙과 함께 묻힌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시상 바깥쪽에서 출토된 석부의 경우는 유구 바닥에서 다른 유물들과 함께 같은 높이에서 출토되었기 때문에 무덤이 축조될 당시에 다른 부장품과 함께 부장되었을 가능성도 높다. <그림 15-6>은 유구석부로 이암혼펠스제이다. 완형으로 단면은 사다리꼴이며, 신부는 전체를 길이방향으로 마연하였다. 길이 16.0cm, 너비 3.8cm, 두께 5.2cm. <그림 15-7>은 편평편인석부이다. 완형으로 신부와 인부는 잘 마연하였다. 이암혼펠스제이다.

<그림 16-1>은 양정동에서 채집된 합인석부이다.⁵⁰⁾ 정확한 출토지점과 유구는 알 수 없다. 비교적 대형으로 전체적으로 잘

48) 河仁秀, 《嶺南地方 丹塗磨研土器에 대한 新考察》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49) 釜山大學校博物館, 《東萊福泉洞古墳群Ⅲ》, 1996. p.30.

50) 河仁秀, <IV. 靑銅器時代 遺蹟과 遺物> 《釜山の 先史遺蹟과 遺物》, 釜山市立博物館 福泉分館, 1997. p.108.

마연되어 있다. 완형이며, 신부는 중앙부가 약간 볼록한 형태이다. 길이 19.1cm, 너비 7.0cm, 두께 4.3cm이다.

3) 석좌

석좌는 당감동에서 채집된 것(그림 15-8)⁵¹⁾으로 1점이 있다. 단면은 장방형이며, 전면이 잘 마연되어있다. 완형이며,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을 이룬다. 길이 12.4cm, 너비 2.4cm, 두께 2.0cm이다.

<축소 1/3>

<그림 16> 양정동(1), 기장군 길천리(2·3), 온천동지석묘(4) 출토유물

51) 河仁秀, 1997년 <앞의 책>.

4) 반월형석도

석도는 2점인데, 모두 기장군 길천리에서 채집된 것이다. 2점 모두 현재 국립김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자료는 김해박물관⁵²⁾으로부터 제공받았다. 채집된 경위나 유구에 대한 기록은 없다.

<그림 16-2>는 舟形石刀로 완형이며, 날부분은 일부 결손되었는데 최근에 파손된 것이다. 편인이며, 대체로 精磨되었으나, 부분적으로 마연 흔적이 남아있다. 사용흔은 관찰되지 않는다. 석도의 구멍은 2개로, 양면에서 뚫었다. 孔間거리 2.1cm, 구멍과 背와의 길이 2.1cm이다. 길이 15.3cm, 폭 5.7cm, 최대 두께 0.8cm.

<그림 16-3>은 魚形석도이다. 완형으로 날부분의 일부 결손은 <그림 16-2>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파손된 것으로 사용흔은 관찰되지 않는다. 片刀이며, 전면 거친 마연 흔적이 남아있는데, 상하면과 背面 일부에 chipping 흔적이 희미하게 일부 잔존한다. 한쪽 背面에는 flacking 흔적도 일부 잔존한다. 석도의 구멍은 양쪽에서 뚫었는데, 공간거리 2.5cm, 구멍과 背와의 길이는 2.0cm이다. 길이 13.3cm, 폭 5.8cm 최대두께 1.0cm.

석도 2점은 모두 석도 폭에 대한 석도 길이의 비율이 각각 1:2.7 (그림 16-2), 1:2.3(그림 16-3)으로 단주형과 단어형으로 분류된다. 두께는 <그림 16-2>가 0.8cm <그림 16-3>가 1.0cm로 어형석도가 더 두텁다. 공간거리도 어형석도가 주형석도 보다 넓다. 대체로 어형석도와 주형석도는 계보가 다른 것으로 파악되지만, 공간거리와 두께의 차이는 시기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2점 모두 크게 보아 무문토기시대 中期로 편년할 수 있지만, <그림 16-3>의 어형석도가 <그림 16-2>의 주형석도보다 약간 이른 시기의 것으로 생각된다.

52) 국립김해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개관전도록.

5) 석검

온천동지석묘군 중에서 발견되었다고 기록된 것(그림 16-4)으로 앞에 소개한 반월형석도와 함께 현재 국립김해박물관에 소장 중이다.⁵³⁾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에 의해 채집된 유물로 유물 자체에 온천동지석묘군 중에서 발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을 뿐 그 외에 유구나 유물의 출토 상황 등은 알 수 없다.

兩刃이며, 전체적으로 거칠게 마연하였다. 背部에는 flaking 후 마연하였으나 흔적이 남아있으며, 기부는 결손되었다. 刃部和先端部가 만나는 모서리 부분은 최근에 결손된 것이다. 잔존길이 13.9cm, 최대 폭 5.1cm, 신부 폭 3.9cm, 두께 1.5cm.

무문토기시대 수확구로는 석도와 석검을 들 수 있는데, 유적에서 주로 출토되는 것은 석도로 석검의 출토에는 드문 편이다. 남부지방에서 석검의 출토에는 합천저포리 E지구 5호 주거지 출토품 1점과, 성산패총 IX층 1점, 송국리 54호 주거지 출토품 1점, 늑도 유적 출토품 등이 알려져 있으며,⁵⁴⁾ 최근에 발굴된 자료⁵⁵⁾로는 산청 소남리, 곡성 현정리, 진주 대평리 출토품 등이 있다. 철검이 등장하기 전까지 主 收穫具는 반월형석도로 석검은 부차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6-4>는 유구나, 공반유물이 없어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두께나 날의 형태로 보아 대체로 무문토기시대 중기로 편년 할 수 있을 것 같다.

온천동에 지석묘가 있었다는 기록은 없으나, 온천동 출토 일단 병식석검(그림 15-9)은 분묘 출토 유물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석묘는 상석이 밖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특징 때문에 유적을 발견하기 용이하며, 일찍이 일제강점기 때부터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석검은 일반적으로 지석묘에서 주로 출토되는 유물은

53) 국립중앙박물관, 《겨레와 함께한 쌀》, 새천년 특별전 도록, 2000. p.32의 35. 돌낫 중 출토지미상으로 표기된 유물

54) 安在皓, <鐵鏃의 變化와 劃期> 《伽耶考古學論叢》2, (財)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7.

55) 국립중앙박물관, 《겨레와 함께 한 쌀》, 2000.

아니지만, 지석묘군에서 발견되었다고 표현된 것으로 보아 지석묘들 사이에서 채집된 것으로 판단된다. 온천동의 어디인가는 알 수 없지만 온천천 가까이에 지석묘유적이 어디엔가 자리잡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Ⅲ. 遺蹟 입지와 분포에 대한 검토

부산지역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 유적 가운데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해 본 것이 <표 3>이며, 이것을 지도에 나타낸 것이 <그림 17>이다. 위치가 확인되는 유적과 유물은 약 36 개소에 이른다. 유적의 숫자로는 신석기시대나 삼한시대 등에 비해 월등히 많다. 그러나 대부분 유물만 수습되거나, 채집되어 유구의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고, 유구가 확인된 유적은 다른 시대 유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경우가 많다.

부산은 바다로 흐르는 소하천들 주변으로 완만한 구릉들이 발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청동기시대유적의 조사가 없다. 이는 유적으로 확인되기 전에 이미 도시화로 파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나 그 이후 도로개설과 같은 토목공사 중에 긴급 수습된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

특히 부산은 일찍이 개화기부터 도시화가 점차 이루어지면서 많은 유적들이 파괴되었을 것인데,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부산은 피난민들이 대거 거주하면서 야트막한 야산⁵⁶⁾은 모두 피난민들

56) 이러한 것의 좋은 예가 북천동고분군이 자리잡고 있는 구릉이다. 고분군 발굴조사 당시 구릉 전체에는 6.25전쟁 이후 피난민의 가옥이 무질서하게 수도 없이 자리잡고 있었는데, 가옥의 철거 및 정리는 최근에야 겨우 마무리되었다. 지표면에서 그다지 깊게 수혈을 파지 않는 청동기시대의 주거지가 있었다면 완전히 파괴되었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표 3> 부산지역의 무문토기시대 유적과 유물

유적명	성격	유물	시기	문헌(註)	지도	비고
노포동	주거지 2	호, 발(구순각목토기, 구연부편), 저부편, 석촉, 반월형석도	전기	7	9	발굴
반여동	주거지 2	단사선문토기, 공열토기, 蛤刃石斧, 石鏢	중기	8	17	발굴
울리	암읍, 폐촌	토기편, 석촉, 환상석부, 석착	전기	11	29	발굴
조도	폐촌	공열토기, 구연부편, 저부편, 石劍, 石鏢	전기후기	23	28	발굴
오륜동	생활유적	토기片 다수, 합인석부, 유구석부, 타제석부, 砥石	전기	14	10	발굴
시랑리 공수A	생활유적	토기편	·	17	5	지표
장안읍 임랑리	생활유적	토기편, 합인석부	전기	17	1	지표
괴정	폐촌	단도마연토기, 토기편 다수	중기	24	24	수습
괴정1동	주거지?	무문토기호, 토기편다수	중기	13	25	수습
온천동	생활유적	무문토기발, 미생토기호	후기	16	12	지표
온천2동	지석묘?	석검	중기	6	12	지표
내성	주거지 2	점토대토기, 미생토기	후기	22	16	발굴
북정	폐촌	점토대토기	후기	28	31	발굴
거제동	생활유적	고배, 점토대토기, 토기편다수, 어망추	후기	6	19	시굴
노포동 대룡	석관묘		중기	30	7	지표
사직동	석관묘 1	단사선문호형토기, 석검	중기	31	18	수습
괴정2동	지석묘 1	단도마연토기, 마제석검, 석촉	중기	34	26	수습
감천동	지석묘 6	석검	중기	36	27	수습
감천동	지석묘	석검, 석부, 유구석부	중기	36	27	채집
장전동	지석묘	석검, 검파두식	후기	43	11	수습
두구동 임석	석곽묘	석창, 토기편	후기	40	8	발굴
미음동 분절	지석묘 3		중기	41	32	지표
가덕도 두문	지석묘 1		중기	42	34	지표
반송동	무덤유적	석검	중기	6	6	채집
북천동	생활유적?	유구석부, 편평편인석부	중기	49	15	발굴
대신동	지석묘?	석검, 검파두식	중기	43	23	수습
동래	지석묘	석검	중기	43	·	수습
수영동	지석묘	석검	중기	43	22	수습
양정	생활유적	합인석부	전기	6	21	채집
연산동	생활유적	토기편	·	21	35	발굴
당감동	생활유적	석착	중기	6	20	채집
길천리	생활유적	반월형석도	중기	52	36	채집

의 판자촌이 자리잡았다고 한다. 석검이나 눈에 띄는 뚜렷한 유물이 출토되지 않은 주거지등의 생활유적은 소리도 없이 사라진 것으로 상상해 볼 수 있다. 석검들의 출토지가 부산 전역 곳곳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아 부산에도 무문토기시대 유적들이 곳곳에 존재하였을 것으로 상상해 보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림 17> 유적 분포도(▣: 해발100m 이상)

1. 임랑리 2. 칠암리 3. 죽성리 4. 청강리 5. 시랑리 6. 반송동 7. 노포동 대룡
8. 두구동 입석 9. 노포동 10. 오름대 11. 장전동 12. 온천동 13. 부곡동 14. 금사동
15. 복천동 16. 내성 17. 반여동 18. 사직동 19. 거제동 20. 당감동 21. 양정동 22. 수영동
23. 대신동 24. 괴정동 패총 25. 괴정1동 26. 괴정2동 27. 감천동 28. 조도패총 29. 울리
30. 화명동 31. 북정 32. 미음동 33. 지사동 34. 가덕도 두문 35. 연산동 36. 길천리

<그림 17>에 의하면, 부산의 무문토기시대 유적은 부산시내 전역에 고루 분포함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수영천-온천천가에 가장 조밀하게 분포한다. 무문토기시대는 농경생활이 정착화되는 시기로서, 중기가 되면 도작문화가 한반도 전체에 광범위하게 확산된다. 이 시대 사람들은 수도작이 용이한 곳을 중심으로 주거를 마련하였을 것이다. 부산지역도 역시 하천가에 발달된 충적지를 중심으로 유적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무문토기시대 전기, 중기, 후기⁵⁷⁾의 시기별로 유적지를 표시하여 본 것이 <그림 18~20>의 지도이다. 中期에 해당되는 유적이 많으면서 부산시내 전역에 고루 분포하며, 상대적으로 전기와 후기에 해당되는 유적이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은 경남을 비롯하여 남부지방 무문토기시대 전반적인 유적의 분포상황과도 일치한다.

먼저 전기에 해당되는 유적의 위치를 표시하여 본 것이 <그림 18>이다. 발굴조사로 확인된 유적으로 노포동 주거지유적, 울리암유적, 조도패총 하층이 있다.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전기로 편년할 수 있는 유물이 채집된 곳으로 오륜대와 양정동·임랑리 등의 유적이 있다. 이들은 모두 생활유적이며, 전기에 해당되는 분묘유적이 확인된 것은 없다. 입지에 따라 크게 임랑리와 같이 해안가에 위치한 유적과 노포동·오륜대·양정동 등 내륙에 위치한 유적으로 나누어진다. 유적간의 거리는 노포동유적과 오륜대유적이 가장 가까운 편인데, 직선거리로 약 2~3km 정도이다. 이 밖에 다른 유적들은 대체로 직선거리로 5km 이상 떨어져 있다. 유적의 수가 적어서 분명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부산 전역에 걸쳐 분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7) 安在皓, <韓國 農耕社會의 成立> 《韓國考古學報》 43輯, 2000. 10에서는 무문토기시대를 돌대문토기를 표지로하는 조기를 새롭게 설정하여 4시기로 편년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조기에 해당되는 유적은 지금 현재까지 없다.

<그림 18> 前期 유적(▣: 해발100m 이상)

中期에 해당되는 유적으로는, 노포동 대룡유적과 온천동유적, 온천동지석묘유적(석검출토), 수영동유적, 괴정동패총, 괴정1동유적, 괴정2동유적, 감천동유적, 대신동유적, 미음동유적, 두문유적, 기장 길천리유적 등이다. 지석묘유적으로는 괴정2동·미음동·감천동·가덕도 두문·대신동 등이 있으며, 노포동 대룡은 석관묘가 확인되었는데, 사직동유적도 석관묘유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온천동·반송동·수영동·금사동 등에서는 석검이 출토

되었는데, 모두 정확한 유구의 형태는 알 수 없으나 분묘유적에서 출토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이 분묘유적이며, 괴정동패총과 괴정1동 유적, 반여동유적은 생활유적이다. 감천동과 온천동유적, 기장 길천리 출토유물로 보아 생활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분묘만 확인된 유적도 가까이에 주거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무문토기시대 중기부터 묘역이 주거구역과 가까운 거리를 두고 분리되므로 위의 분묘유적 가까이에 마을 유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9> 中期 무덤유적(▣: 해발100m 이상)

대부분 내륙에 위치하며, 부산 지역 전역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대신동과 괴정동 일대에 조밀하게 분포(반경 3km 이내)하고 있으며, 그 밖의 유적들은 직선거리로 3~5k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한다.

무문토기시대 후기에 해당되는 유적으로는 임석유적과 장전동유적, 내성유적, 거제동유적이 있다. 이중 임석유적과 장전동유적은 분묘유적이며, 내성유적에서는 주거지 2동이 확인되었으며, 거제동유적에서는 유물만 채집되었다. 모두 내륙에 분포하며, 유적이 일정한 범위에만 한정되어 분포한다는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유적간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3~5km 정도이다. 이 후 노포동고분군, 동래패총, 복천동고분군, 연산동고분군으로 이어지는 삼한·삼국시대 부산의 주요 유적들의 분포권과도 동일하다. 무문토기시대 후기의 유적 분포권이 일정한 범위를 가지면서 이후 부산의 중심유적과 인접하여 분포하는 것은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고고학의 연구성과에 따르면 삼한·삼국시대 부산지역에는 동래를 중심으로하는 강력한 통합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 대표적인 유적이 노포동과 복천동고분군이다.

무문토기시대는 농경이 정착되는 시기이며, 특히 中期가 되면 水稻作 중심의 도작문화가 한반도 전체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시기이다. 부산에서 주거지가 발굴조사된 유적은 전기로 편년되는 노포동유적과 중기에 해당되는 반여동유적, 후기에 해당되는 내성유적이 있다. 모두 크게보아 평지에 임한 低丘陵地의 구릉형 취락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 구릉형취락은 수도작을 중심으로한 농경문화를 가진다고 한다.⁵⁸⁾ 구릉형취락의 대표적인 형태로 울산 옥현유적과 논산 마전리유적의 예로 볼 때, 논은 구

58) 安在晧, 2000년 <앞의 글>.

릉과 접하는 평지 또는 계곡에 조성된다. 부산의 유적에서는 논의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들 주거유적 아래 구릉과 접하는 평지에 논의 만들어 졌을 것이며, 물은 양이 많지 않을 지도 모르지만 계곡에서 하천으로 흐르는 물을 이용하였을 것이다.

<그림 20> 後期 무덤 유적

(●: 무문토기시대 후기, ▲: 삼한시대 분묘)

부산은 우리나라 4대강의 하나인 낙동강과 많은 준용하천이 흐르고 있어 물이 풍부한 지역이다. 시내를 관통하는 20여개의

준용하천이 있으며,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수영천과 동천·온천천·보수천 등이 있다.⁵⁹⁾ 부산의 중기의 유적들은 대부분 수도작이 용이한 이들 하천과 연결되는 계곡이나 평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부산은 무문토기시대의 상징적인 유물인 청동기의 출토예가 1점도 없다. 청동기는 최근의 발굴자료에 의하면 경남에도 증가추세에 있다.⁶⁰⁾ 부산은 지리적으로 한반도 동남쪽 끝에 위치하며, 비교적 넓은 평지를 끼고 있지 못하여 선진문물 수용 등에서 낙후지역이었던 지도 모른다. 지식묘 축조 사회 단계부터 이미 정치체(國)의 성립을 언급하는 학자도 있지만, 대체로 무문토기시대 후기(삼한시대 전기)인 기원전 3~2세기 경에는 소국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설이 일반적이다.⁶¹⁾ 부산지역에서는 무문토기 후기 단계에는 소국이라고 불리울만한 강력한 정치체의 성립은 확인되지 않지만, 부산지역에서 유적의 분포양상의 변화는 다음 단계의 정치체 성장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부산지역에서 강력한 정치체의 성립의 기초는 무문토기시대 후기에 마련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부산의 유적 분포양상이 청동기시대 중기와 비슷하게 부산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좁지만 평지를 중심으로 각각 하나의 단위유적으로 곳곳에 존재하는 것은 5세기 후반대 이후의 일이다.⁶²⁾ 5세기 후반대가 되면 부산지역은 지방체제가 어느 정도 정비된 신라세력으로 편입된다.

59) 박정길, <부산의 수질환경> 《부산의 역사와 자연》, 부산라이프신문사, 1992.

60) 국립김해박물관·부산시립박물관 복천분관, 《고고학이 찾은 선사와 가야》, 2000.

61) 이희준, <삼한 소국 형성 과정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의 틀-취락 분포 정형을 중심으로-> 《韓國考古學報》43輯, 2000. 10.

62) 정정원, <제4절 삼국·통일신라시대의 문화제> 《부산시사》, 1991.

釜山大學校博物館, 《機張郡文化遺蹟地表調査報告書》, 1998.

IV. 무덤의 특징

무문토기시대의 무덤은 지식묘, 옹관묘·석관묘·토광묘 등이 있다. 부산지역에서는 지식묘와 석관묘유적이 알려져 있다. 석관묘유적으로는 노포동주거지 북쪽에 위치하는 노포동 대룡 석관묘가 있다. 판석석관묘로 장방형이며 장벽에 3매 이상의 판석을 잇대어 세워 만든 형태이다. 정한덕·이재현의 석관묘 IA類型⁶³⁾에 속한다. 정식 발굴조사된 것이 아니고 지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출토유물이 없어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다.

네벽과 개석이 각각 1매의 판석으로 만들어진 사직동 석관묘는 정확한 형태나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출토된 유물은 청동기시대 중기로 편년된다. 석관묘는 지식묘의 하부구조로도 채용되기 때문에 지식묘일 가능성도 있다.

지식묘는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무덤양식으로 거대한 돌을 무덤 위에 올려놓는 특징적인 형태의 무덤이다. 지식묘는 중국의 동북지역에서부터 일본 구주지역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는데, 우리나라 서남부지역에 가장 밀집되어있다. 상석이 표식처럼 위로 돌출되는 무덤의 특징상 지표조사 등에서 눈에 잘 띄기 때문에 고고학 연구분야 가운데서도 일찍부터 연구의 대상이 되어 오고 있으며, 많은 연구가 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아직도 변화발전의 과정마저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이기도 하다. 부산의 무문토기시대 무덤으로는 지식묘가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한다. 다음에서는 그 동안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부산지방 지식묘유적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63) 鄭漢德·李在賢, <南海岸地方과 九州地方의 靑銅器時代 文化 研究-繩文晩期~彌生前期の 墓制와의 比較를 中心으로-> 《韓國民族文化》12, 釜山大學校 韓國民族文化研究所, 1998. 12.

부산에서 지석묘유적은 미음동 분절지석묘, 가덕도 두문지석묘, 괴정2동, 감천동지석묘, 사직동, 장전동유적 등이 조사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지석묘에서 출토되었다고 추측되는 유물들이 수 점 있다. 지석묘 역시 정식으로 발굴 조사된 유적은 없다. 현재 상석이 확인되며, 하부구조가 보존되어 있다고 추정되는 유적은 미음동 분절지석묘와 가덕도 두문지석묘가 있다. 미음동 분절지석묘는 소규모 군집지석묘이며, 두문지석묘는 단독지석묘이다. 외형상으로는 두 유적 모두 남방식지석묘로 파악되며, 시기는 대체로 청동기시대 중기라고 판단된다.⁶⁴⁾

수습조사에 의한 것이지만, 어느 정도 기록이 있어 유구의 형태와 유물의 출토상태가 파악되는 유적으로는 괴정2동유적, 감천동지석묘가 있다. 감천동지석묘는 5기 이상의 지석묘가 군집을 이루고 있었으며, 대체로 하부구조는 지하석곽식 구조에 지석과 상석을 갖춘 형태이다. 괴정2동유적 역시 지하 석곽이 하부구조이며, 1기만 확인되었다. 감천동지석묘는 소규모 군집지석묘이며, 괴정2동은 단독지석묘이다. 대신동에도 소규모 군집지석묘가 자리잡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상과 같이 부산지방의 지석묘유적은 단독지석묘가 우세하며, 몇 개의 지석묘가 모여서 군집을 이룬다고 해도 5기 내외로 소규모이다. 이러한 현상은 김해지방도 거의 유사하다. 고 김해만내에 지석묘유적은 무계리지석묘, 내동지석묘, 구지봉지석묘, 서상동지석묘, 수로왕릉내의 지석묘, 김해패총의 지석묘, 김해 부원동 등이 있다.⁶⁵⁾

64) 河仁秀, <IV. 靑銅器時代 遺蹟과 遺物> 《釜山の 先史遺蹟과 遺物》, 釜山市立博物館 福泉分館, 1997.

65) 釜山大學校博物館, 《金海鳳凰臺遺蹟》, 1998. p.7의 도면 참조.

<그림 21> 김해 지석묘 분포도(▣: 해발100m 이상)

부산에는 묘역시설이 있는 지석묘가 알려진 바는 없다. 묘역시설은 발굴조사를 통해서만 확인되는 점을 감안할 때, 상석 아래

유물만 수습한 경우가 대부분인 부산지방의 지식묘에서는 묘역 시설을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현재까지의 자료로 보는 한 묘역을 형성하고 있으면서 내부에 부석이 만들어져 있는 군집지석묘는 경남 서부지방 사천-남강-황강을 잇는 지역 以西에서 주로 확인된다.⁶⁶⁾ 무문토기시대 중기가 되면 주거지의 형태나 석기, 토기 등에서 남부지방은 서남지역, 동남내륙지역, 동남단지역으로 지역색이 나타난다.⁶⁷⁾ 이러한 지역색이 묘제에도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부산지역 지식묘는 대규모의 군집 지식묘와 내부에 부석시설을 갖춘 묘역이 형성된 유적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부산지역 지식묘유적의 한 특징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지식묘형성 시기에 관해서이다. 부산지역의 지식묘는 모두 정식 조사된 유적이 아니기 때문에 지식묘의 형태로서는 정확한 편년적 위치를 찾을 수 없다. 상석의 규모와 하부 구조, 상석과 하부구조와의 관계 등 지식묘 발굴조사로서 알 수 있는 구조적 특징도 파악되는 유적이 거의 없다.

지석묘에서 출토되었다고 기록된 유물들과 분묘 출토품이라고 생각되는 부산지역 석검들을 여러 연구자들의 편년안⁶⁸⁾에 대비시켜 본 것이 <표 4>이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석검들

66) 덕천리지석묘와 김해 패총의 지식묘 경우 묘역이 형성되어 있지만 묘역 내부에 부석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며, 묘역도 군집묘 전체에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묘에만 형성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

67) 安在皓, <松菊里類型의 檢討> 《嶺南考古學》 第11號, 1992, 12

68) 有光教一, 《朝鮮磨製石劍の研究》, 京都大學文學部考古學叢書 第二冊, 京都, 1959. 全榮來, <韓國磨製石劍·石鏃編年에 關한 研究> 《馬韓 百濟 文化》4·5合輯,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1982.

沈奉謹, <日本 彌生文化 初期의 磨製石器에 對한 研究-韓國 磨製石劍과 關聯하여-> 《嶺南考古學》6號, 1989, 12.

安在皓, 《南韓 前期無文土器의 編年-嶺南地方의 資料를 中心으로->, 慶北大學校 大學院, 1991.

이 무문토기시대 중기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그림 16-4> 석검이 출토한 곳에 지석묘유적이 존재하였다고 한다면 중기에 해당되는 시기일 가능성이 높다.

<표4> 부산지역 출토 석검에 대한 연구자들의 편년안

도면 번호	출토지	규격(cm)			編 年			
		길이	병부폭	두께	有光教一	全榮來	沈奉謹	安在皓
13-2	사직동	14.1	8.1	0.8	BⅡ	BⅢ2	IVb	Ⅲa
13-3	사직동	(24.4)	(8.4)	0.8	B I b	BⅡ3	IVa	Ⅱc
13-4	감천동	(28.8)	8.0	0.8	BⅡ	BⅢ4	Vb	Ⅲd
5-6	괴정동	(25.2)	(25.2)	0.7	BⅡ	BⅢ3	V a	Ⅲa
15-12	대신동	(30.9)	6.6	0.7	B I b	BⅡ2	IVa	I b
15-4	동래	27.4	5.1	0.7	BⅡ	BⅢ4	IVb	Ⅲa
15-5	동래	20.2	5.4	0.8	BⅡ	BⅢ3	IVb	Ⅲa
15-3	수영동	20.8	4.4	0.7	E	E I	IVb	IVa
15-9	온천동	(20.3)	·	0.8	BⅡ	D I 2	IV	Ⅲa
15-10	온천동	11.8	2.4	0.8	·	BⅢ3	IVb	IVb
15-11	반송동	16.4	5.3	0.8	BⅡ	BⅢ4	IVb	Ⅲb

지석묘유적들이 대부분 중기에 집중되는 현상은 부산지역에만 해당되는 특수한 상황이라기보다는 남부지방 지석묘유적들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이해된다. 경남지방에서 유물이 출토되어 축조 연대를 알 수 있는 지석묘유적들로는 사천 이금동, 사천 소곡리, 진양 대평리, 거창 산포, 거창 대야리, 합천 역평, 합천 봉계리, 합천 저포리, 창원 외동리, 창원 곡안리, 창원 덕천리, 밀양 남전리, 의령 석곡리, 함안 도항리, 의창 진동리, 김해 내동, 김해 부원동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무문토기 전기로 편년할 수 있는 것

은 합천 저포리 유적 정도이며, 거의 대부분이 중기에 편년된다.⁶⁹⁾ 무문토기시대 중기는 석관묘·옹관묘·토광묘 등도 묘제로서 정착되는 시기이다. 전기에 비해 중기 시기에 지식묘가 집중 조영되는 이유를 지식묘가 전기에는 소수계층의 소유물이지만 중기가 되면 집단공동의 묘제로 전환된다고 보기도 하고,⁷⁰⁾ 이와는 반대로 중기에는 여러 요인으로 유력개인이거나 유력집단이 등장하게 되고 이들의 묘제가 지식묘라고 보는 견해⁷¹⁾가 있다. 이는 지식묘를 축조한 사회가 어느 단계에 속하는가 하는 사회진화단계의 문제와 직결되며, 여기에 대해서는 선학들에 의해 다양한 각도⁷²⁾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청동기 사회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농경생활이 정착되는 단계이며, 특히 중기가 되면 도작문화가 한반도 전체에 광범위하게 확산된다. 이는 중기문화의 정착·확산·발전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앞서 언급한 부산의 무문토기시대 유적 분포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중기에 해당되는 유적이 가장 많으며, 이들 유적은 부산 시내 전역에 골고루 분포한다. 지식묘는 무덤이면서 농경사회의 기념물적인 성격도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⁷³⁾이 있다. 지식묘가 대부분 중기에 편년되면서 경남과 부산전역에 광범위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은⁷⁴⁾ 그러한 농경사회 마을의 기념물내

69) 河仁秀, <嶺南地域 支石墓의 型式과 構造> 《伽耶考古學論叢》1, 1992.
鄭漢德·李在賢, <南海岸地方과 九州地方의 靑銅器時代 文化 研究-繩文晩期~彌生前期の 墓制와의 比較를 中心으로-> 《韓國民族文化》12, 釜山大學校 韓國民族文化研究所, 1998. 12. 등의 논문 참조.

70) 河仁秀, <嶺南地方 無文土器時代 墓制의 樣相-洛東江下流域을 中心으로-> 《彌生の墓制(1)》, 埋藏文化財研究會, 2000.

71) 安在皓, <韓國 農耕社會의 成立> 《韓國考古學報》43輯, 2000. 10.

72) 崔夢龍, <全南地方 支石墓社會와 階級の 發生> 《韓國史研究》31, 1981.

73) 이성주, <마. 지식묘: 농경사회의 기념물> 《한국 지식묘(고인돌)유적 종합 조사·연구(I)》, 문화재청·서울대학교박물관, 1999.

74) 부산의 유적분포로 보면 기원후 5세기 후반대의 고분의 분포 빈도와 가장 비슷하게 광범위하게 유적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는 상징물로서 의미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부산지방에서 후기에 해당되는 분묘 유적으로는 두구동 임석 석곽묘와 장전동 석관묘가 있다. 두구동임석 석곽묘에서는 두형 토기 배부 1점과 석창 1점이 출토되었으며, 주변에서 원형점토대 토기편이 출토되었는데 시기는 대체로 원형점토대토기 단계라고 판단된다.

장전동 석검은 有光教一 분류 C式에 해당되며, 이와 같은 석검들로는 경상북도 경주군 천북면, 강원도 고성군 간성면 신안리, 경상북도 경주군, 경상남도 김해군 회현리 출토품도 각 1점씩 보고 되어 있다.⁷⁵⁾ 나무자루로서 연결되는 유경식석검의 형태로 장전동 석검은 검파두식과 약 30cm 떨어져서 출토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자루의 길이는 더 짧은 형태일 것으로 생각된다. 장전동 석검은 십자형 석제 검파두식이 일괄로 출토되었다. 장전동유적과 같이 십자형 검파두식과 일괄로 출토된 것으로 흥해학천리 37호 석관묘 출토품⁷⁶⁾이 1점 있다. 흥해 학천리 37호 석관묘 출토품은 장전동 것과 비슷한 크기로, 역시 십자형 석제 검파두식과 세트를 이룬다. 학천리 37호 석관묘는 장축 150cm, 단축 55cm, 깊이 45cm 규모로 이중개석 석관묘이다. 장전동석관묘는 편평석을 개석으로 갖춘 남방식지석묘의 하부구조로 알려져 있는데, 학천리 37호의 예처럼 이중개석을 한 석관묘일 가능성도 크다.

검파두식은 석제와 토제도 만들어지나 청동제가 가장 많다. 일반적으로 단순한 석제 검파두식에서 점점 다양한 장식이 가미된 동제 검파두식으로 변화 발전해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남 지방 출토 검파두식도 십자형이 대부분으로 동제품이 가장 많으

75) 有光教一, 《朝鮮磨製石劍の研究》, 京都大學文學部考古學叢書 第二冊, 京都, 1959. pp.34-36.

76)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포항 흥해 학천리 유적 발굴조사> 현장설명회자료1, 1999.

며, 한국식동검, 철검과 세트를 이루면서 대부분 목관묘유적에서 출토되었다.

영남지방에서 장전동유적 출토품과 같이 공반관계를 알 수 있는 석제 검파두식은 임당F1-15호 목관묘 출토품과 포항 흥해 학천리 출토품이 있다. 이들 외에 석제 십자형 검파두식으로 출토지를 알 수 있는 것으로는 서울 上一洞, 부여 窺岩面, 영암 長川里, 함평 草浦里, 부여 秀木里, 보령 靑蘿面 출토품과 傳 全北 출토품, 傳 김천시 鳳山面, 경주 남산, 경주시 時來里, 늑도 B지구 출토품 등이 있다. 부여 수목리와 보령 청라면은 요령식과 한국식동검의 중간단계의 동검과 세트로 출토되었으며, 임당과 늑도, 경주 출토품 등은 검파두식이 단독으로 출토되었고, 서울 上一洞, 함평 초포리 등은 한국식동검과 조합된다. 목관묘이거나 목관묘로 추정되는 유구에서 출토되었으며, 지식묘에서 출토된 것은 영암장천리와 부산 장전동 출토품이 있다. 한국식동검문화기의 검파두식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동검과 세트를 이루는 것이 대부분으로 석제품과 조합된 것으로서 장전동 출토품은 드문 예이다.

<표 5>는 영남지방에서 최근에 보고된 십자형 검파두식을 모아 본 것이다. 검파두식은 대부분 청동제로서 세형동검과 조합된 예가 가장 많은데, 철검과 세트를 이룬 것들도 있으며, 검파두식만 단독으로 출토되기도 한다. 대부분 목관묘 출토품이다. 세형동검에서 철검으로 변화·발전하면서 검파두식은 동제가 그대로 조합된다. 초기의 철검과 세트를 이루는 검파두식은 다양한 장식이 가미되기도 하다가 이후 손잡이 전체가 철제로 대체되고, 검보다는 모나 도가 더 다양하게 사용되면서 동제 검파두식은 보이지 않게 된다. 의기화된 김해 출토 동모와 함께 출토한 한국식동검과 세트를 이룬 검파두식처럼 장식이 더욱더 많아져 실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의기화되기도 한다.

<표 5> 영남지방에서 출토된 십자형 검과두식 현황

번호	유적명	재질	크기	조합	공반유물	유구
1	임당 A-I-74	청동	6.0×1.4	철검	호편, 철검1, 철모1, 철도1, 단조철부2, 철검1, 판상철부16, 오수전1	목관묘
2	임당 A-I-76	청동	6.7×1.5	철검	조합우각형파수부호2, 주머니호, 단경호1, 철검1, 철모2, 철부2.	목관묘
3	임당 A-II-4	청동	8.0×1.9	철검	주머니호1, 철검1, 세형동검	목관묘
4	임당 E-118	청동	5.9×3.3	철검	주머니호1, 단경호1, 철모2, 철부1, 칠초1, 철검2, 등	목관묘
5	임당 A-I-34	청동	4.0×1.0		주머니호, 청동마1, 철환1, 옥류63	옹관묘
6	임당 F1-15	석계	5.4×4.5		삼각형집토대토기1	목관묘
7	팔달동45	청동	6.7×3.7	동검	주머니호1, 흑색마연장경호1, 조합우각형파수부호2, 철모1, 철부1, 판상철기1, 철착, 세형동검장경호3, 발1, 등 토기 다수	적석목관묘
8	팔달동57	청동	6.3×3.5	철검	고배2, 흑색장경호1, 조합우각형파수부호1, 철모1, 철검1, 대패날1, 鐵鉞1, 철착1, 철부1	목관묘
9	팔달동99	청동	5.2×3.0		고배1, 칠초1, 조합우각형파수부호1, 철모1,	목관묘
10	팔달동100	청동	6.8×3.2	동검	조합우각형파수부호1, 동모2, 동검1, 철모2, 철검1, 철부2, 철착1	목관묘
11	팔달동101	청동	7.0×3.3		주머니호1, 와질단경호1, 청동환1, 쌍두관상동개, 칼집부속근, 도자1, 철환1, 철사, 파베, 철검	목관묘
12	다호리 1 (2점)	청동		동검	漆鞘銅劍2, 동모1, 동경1, 청동대구1, 거치문동환1, 동환1, 오수전3, 소동탁1, 철검2, 철모4, 철도자, 철과, 철환두도자 판상철부, 철부1, 칠기두2, 통형철기1, 철검1 등 다수	목관묘

번호	유적명	재질	크기	조합	공반유물	유구
13	다호리19	청동	7.0×3.2	동검	漆鞞銅劍1, 쌍두관상동기1, 우각형동기1, 유구동기1, 철제따비, 꺾수형장식이형철기1	목관묘
14	경주죽동리 (2점)	청동		동검	竿頭鈴2, 혁금구25, 동모1, 동과1, 한국식동검1, 소동탁1, 동돈1	목관묘
15	전 대구 지산동	청동			이형동기1, 동검초장식구1, 동과초장식구1, 각형동기2, 동경6	목관묘
16	대구 평리동	청동		동검	세형동검3, 동과1, 검과두식, 검과1, 笠形銅器1, 透窓飾長鼓形금구1, 鞞金具類8, 鞞尾金具, 圓形環狀金具19, 細橢圓形金具, 圓筒形小金具10, 方形小金具, 管形鐵金具2, 靑銅製轡 戚	목관묘
17	홍혜 학천리	석제		석검	마제석검, 석창	석관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남지방에서 출토한 석제·동제의 십자형검과두식은 대체로 한국식동검문화기와 그 이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장전동유적은 석검과 검과두식으로 보아 대체로 임석 석곽묘와 같은 시기인 원형점토대토기 단계로 편년할 수 있다. 이들 두 유적이 지석묘의 하부구조라고 한다면, 지석묘는 한국식동검문화기의 어느 시기까지는 잔존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식동검문화기는 목관묘가 주 묘제로 채용되는 시기이나, 부산에서는 목관묘유적이 조사된 예가 없으며, 청동기의 출토에도 알려진 바가 없다. 임석과 장전동 두 유적으로 이 시기 부산지방 전체를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북으로부터 청동기 등 선진 문물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부산은 지리적 요건 등으로 낙후지역이 아니었을까. 이 시기 이후 중국과 왜를

있는 동아시아의 교역체계가 성립⁷⁷⁾되면서 부산은 교역의 요충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동태를 중심으로 급성장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V. 맺음말

이상에서 간단하지만 부산의 무문토기시대 유적과 유물을 살펴보고 그 특징에 대해서 언급해보았다. 부산의 무문토기시대 유적 중 위치가 확인되는 것은 약 36개소에 이른다. 정식발굴조사에 의한 확인보다는 유물만 수습되거나 다른 유적을 조사하다가 발견된 경우가 많아서 무문토기시대 전반을 이해하는데는 역부족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동안의 연구성과에 비추어 본 부산지역의 무문토기시대 유적과 유물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특징들로서 요약될 수 있다.

유적은 부산 시내 전역에 분포하는데, 주거유적은 대체로 전기에 편년되며 분묘유적은 대부분 중기로 편년된다. 중기에 편년되는 유적이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며 부산 시내에 골고루 분포한다. 그리고 바닷가에 접하고 있으나 패총유적은 수가 많지 않으며, 대체로 신석기시대 패총 위에 형성되어 있다. 무문토기시대는 농경이 정착되는 시기이며 중기가 되면 水稻作 문화가 전역으로 확대되는 시기이다. 부산도 역시 水稻作 위주의 농경생활이 중심이었으며, 마을의 형태는 구릉형취락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 부산 전역에 골고루 분포하던 유적은 후기가 되

77) 李賢惠, <三韓의 對外交易體系> 《韓國史學論叢(上)》 李基白先生古稀記念, 1994., 李在賢, <加耶地域出土 銅鏡과 交易體系> 《韓國古代史論叢》第9輯, 2000. 6.

면 동태를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내에만 존재한다. 분묘유적만 한정하여 본다면 분포범위가 좁아지는 것은 더욱 뚜렷히 알 수 있다. 동태는 노포동·북천동·연산동고분군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정치체가 자리잡는 곳이다. 부산지역에서는 무문토기 후기 단계에 강력한 정치체의 성립은 확인되지 않지만, 이렇게 유적(분묘)의 분포 범위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한정되는 것은 다음 단계의 정치체 성장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부산지역에서 강력한 정치체 성립의 기초는 무문토기시대 후기에 마련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